혼돈과 우연 앞에서 삶을 긍정하기

: 카프카의 문학적 질문들

양 운 덕

1. 카프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카프카는 ‘문학’이다. 카프카를 밀쳐놓는 것은 일상에서 반짝이는 현상들과 텅 빈 긍정들로 세계를 장식하는 데 그치거나 판에 박힌 소외 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은 아닐까?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어떤 점에서 우리 삶의 감추어진/드러난 모습들을 표현하는가? 지금까지 카프카의 작품들을 읽고 어두운 빛을 배경으로 삼아서만 읽어왔다. 그의 작품들에게 고독과 소외의 굴레를 씌운 채 회색의 땅위를 끌고 다녀야만 할까? 그는 왜 자기 작품을 불태우라고 했을까? 과연 그의 작품은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보고에 지나지 않는가? 죄와 암흑 안에서의 몸부림일 뿐인가?

우리는 웃고 즐기면서 카프카를 읽을 수는 없을까? 삶의 고난은 그것을 주체화하는 기쁨과 긍정을 누리는 힘마저 앗아가는가? 왜 카프카의 친구들은 「소송」의 첫 장면인 체포 장면을 보면서 배꼽이 빠지게 웃었을까?

그러면 카프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카프카의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향이 있고, 때로는 상이한 논점들이 대립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것들을 비교, 종합하는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카프카의 질문들에 답하기 보다는 그 질문들 자체, 카프카가 안내하는 출발점에서 우리들 나름의 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작품 내용에 대한 해석보다는) 구조, 형식, 글쓰기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카프카가 형상화한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이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건 그 과정은 나름의 행로를 따르는데 각 단계가 다른 단계와 필연적 관계를 맺지도 않고 합리적 연관을 지니지도 않는다. 각 절차는 서로 무관하고 독립된 것으로서 다른 절차와 이어질 뿐이다. 각 절차는 그 하나하나가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그것들이 연관된 전체에서는 (고정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찾기 어렵다.

성을 찾아가려는 측량기사 카(K)의 무의미하지만 끊임없는 시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성의 관리로 추정되는 클람과 만나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 애인과 사귀어야 하고, 그녀를 위해서 직업을 찾아야 하고, 또한 클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조수와 만나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를 위해서 또 다른 절차로 물러서야 하고..... 이처럼 목표 앞에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이어지는 노력들의 한없는 계열.

성을 지향하는 ‘카’의 노력도 뒷걸음치듯이 하나의 수단을 위하여 그것의 수단에 매달리고, 다시 그 수단을 위한 수단에 매달리고....이런 방식으로 무한 퇴행할 뿐이다. 그는 노력할수록 자신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소송』에서 카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할 때, (화가가 충고하듯이) 완전한 무

죄를 증명할 수 없어서 외면적인 무죄를 선고받고자 하는 까닭에 일시적인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이어지는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과정

첫 번째 유죄 추정→첫 번째의 일시적 무죄 확정→두 번째 유죄 추정 →두 번째의 일시적인 무죄 확정→..... →n번째 유죄추정→n 번째 무죄확정 →..... 으로 이어지는 헤어날 수 없는 절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성』에서 누가 성의 정식 관리인지, 카가 만나야 하지만 매번 만날 수 없는 관리 클람이 한 사람인지, 여럿인지, 그의 업무가 무엇인지, 왜 그와 만날 수 없는지, 왜 그 만남은 항상 어긋날 수밖에 없는 지, 왜 그들은 비밀스러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과연 그들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

2. 「변신」이 던지는 질문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 속에 한 마리 커다란 해충Ungeziefer으로 변해있는 것을 발견했다.”

(첫 문장 이후의 모험/실험.글쓰기는 어디로 가는가? 정해진 길이 있는가?)

* Samsa는 누구인가?

* 벌레가 없는 벌레 이야기, 변신은 어떤 장치인가?

*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는 이유는?

* 문장의 계열들은 어떤 무질서를 이루고 있는가?

* 소통하는 방식, 소통의 불가능성

* 미지의 양식을 구하는 벌레

* 벌레는 ‘죽을’ 수 있는가? 인간의 죽음

* 변신의 이유가 없다면....다만 그 현실만 있다면...

(자기 존재의 짐을 벗어버린 그는 무의미한, 성가신 존재가 된다. 그는 자기 자리를 떠남으로써 존재의 빈 곳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흉측한 벌레로 그 자리를 메운다.

* 나는 누구인가? 내가 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 동료들, 지인들,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3. 무죄를 증명하는 길이 없다면...절차들 속에서 길을 잃다

『소송』의 한 장면을 읽으면서 카프카의 글쓰기가 어떤 실험을 하는지 살펴보자.

그는 왜 질서와 필연성이 아니라 무질서와 우연을 전면으로 내세우는가?

자신의 생일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체포된 카(K)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물론 이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의 시도는 지향점을 제대로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불안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의 소개로 판사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별다른 기대도 없이 그의 아틀리에로 찾아간다.¹⁾ (Kafka, Der Prozess, 132-139)

화가의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 * 실질적인/참된wirklich 무죄 선고(Freisprechung; l'acquittement réel)
- * 의견상의 무죄선고scheinbare Freisprechung
- * 판결 지연Verschleppung.

“물론 실질적인 무죄가 가장 좋지만 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이런 종류의 해결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개인으로서 현실적인 무죄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분명히 피고의 무죄일 뿐일 겁니다. 당신은 결백하므로 오직 당신의 무죄만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가능할 지도 모르지만, 그 경우에 당신은 나는 물론이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겁니다.”

화가의 이런 지적은 카를 혼란스럽게 한다. 처음에 법원에 어떤 논거도 유효하지 않다고 하고 다음엔 공개 재판의 경우에만 그러하리라고 하고 이번에는 결백한 자는 재판에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한다. 재판관에게 개인적으로 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무죄는 개인적으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이다.

“지금 얘기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법조문에 적혀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것들인데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읽어본 것은 없지만 법률에는 당연히 한편으로 죄가 없는 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쓰여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재판관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은 그와 반대입니다. 나는 실질적인 무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판결에 영향력이 행사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경우에 무죄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많은 경우에 무죄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버지가 집에서 소송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면 주의 깊게

1) 법원 관계자가 아니라 법원 소속 화가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고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그는 법원과 일정한 관련을 지니고 결정적이지 않지만 나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카프카의 세계에서 법원과 그 바깥 일상은 구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카의 체포는 그를 특정한 장소에 감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카의 일상 안에서 그의 삶 자체를 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체포되고 유죄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벤야민의 표현을 빌면, 개인들은 법과 삶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삶 자체를 포획하는 예외 상태에 처한다. 그리고 법원은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으면서 모든 피고들을 소송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한다.

들어왔고, 아버지의 아틀리에를 드나들던 판사들도 법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 단 한 번도 실제적인 무죄 판결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무죄 선고를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으시는 말씀이군요” 카는 자신과 자신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내가 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란 그런 면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로군요. 단 한 명의 사형 집행인만으로 법원 전체를 대신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아니면 혹시 예전에는 무죄 판결이 있었다고 들어보셨나요?” 화가가 대답했다. “그런 무죄 판결은... 물론 있었다고들 합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판사들조차 그것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옛날의 관례에 대해서는 전설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 전설에는 실질적인 무죄 판결의 예가 여럿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는 있지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엔 어느 정도의 진리eine gewisse Wahrheit가 들어있으며, 또한 매우 아름다워서sehr schön 나 자신도 그런 전설을 담은 그림을 몇 점 그리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전설만으로 제 의견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카가 말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런 전설을 증거로 제시할 수도 없지 않을까?”

카는 화가의 견해가 개연성이 없고 다른 의견과 모순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의견들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시간도 없었고 그저 화가가 자신을 돕고자 하는 점에 만족했다. 공기가 탁하지만 아틀리에의 창문을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을 침대로 막아 놓았는데, 화가는 판사들이 아침 일찍 침대 옆을 밀고 들어오면 잠에서 깨어나 욕설을 퍼붓는다고 한다. 그는 다른 두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한다. 물론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 것은 무죄인 자(무죄라고 믿는 자)가 실질적인, 참된 무죄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할 결을 물러서는 것이다.

“다른 두 가능성은 뭐라고 하셨지요?” 그는 그 표현들을 다시 잊어버린 것이다. “외면적인 무죄 판결과 판결지연입니다.” 화가가 말했다. “둘[외면적인 무죄 판결과 판결지연]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양자의 차이를 말하면, 외면적인 무죄는 힘을 모아서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판결 지연은 힘이 훨씬 적게 들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먼저 외면적인 무죄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나는 전지 한 장에 당신의 결백Unschuld를 입증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드릴 겁니다. 그 문구는 제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이라 흠잡을 것이라곤 없습니다. 그 확인서를 들고 내가 아는 판사들을 한 차례 순회하면 됩니다.”

화가는 모든 판사가 자기 말을 믿어주는 것은 아니어서 같이 가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 일이 반쯤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보다 난처한 경우는 화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온갖 시도를 해 보지만 효과가 없을 때가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판사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판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판사들의 서명을 충분하게 받아서 담당 판사에게 찾아가면 된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그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담당 판사는 확 인서에 동료 판사들의 보증을 충분히 받았으므로 안심하고 당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다만 여러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에 틀림없이 무죄 판결을 내려서 저와 지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법원을 걸어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외면적인(가상적인/실질적으로 무의미한) 무죄 판결은 최종적인 선고가 아니다. 그래서 뒤이은 체포와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다만 우리 삶이 소송과 소송 사이에 머물러 있어서 그 끝을 다행스럽게 보는 경우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지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무렵이면 자기 삶이 소송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소송 안에서 소송에 맞서서 소송을 위해서만 존재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소송 과정이 바로 삶 자체이다. 소송을 제거하면 삶에서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 외면적으로만 자유로운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시적으로만 자유로운 겁니다. 내가 아는 판사들은 말단에 속한 이들이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최고] 법원alle ganz unerreichbare Gericht만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알려고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판사들은 피고를 고소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위대한grosse 권한을 지니지는 않지만, 고소로부터 느슨하게 풀어주는 권한 정도는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런 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당신은 일시적으로 고소에서 벗어나지만, 고소는 그 후로도 계속 당신의 머리 위를 떠돌다가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다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면적인 무죄와 실질적인 무죄 사이에는 절차상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무죄가 아닌 한 그 과정은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 서류들이 완전히 파일로 정리된 후 소송 절차에서 벗어나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기소장뿐만 아니라 소송 기록, 심지어 무죄판결문까지 소멸됩니다. [외면적인 무죄 판결의 경우에] 서류상으로 무죄 확인서, 무죄 판결문, 무죄 판결 이유서가 첨가되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소송 절차에 계속 남아서 법원 사무처들이 부단한 업무 교류를 하며 요구하는 대로 상급 법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하급 법원으로 반송되기도 하면서 위아래를 오가는데, 그 간격이 때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고, 지체되는 경우에 그 기간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런 경로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때때로 모든 것이 일찌감치 잊히고 서류도 어디론가 사라져 무죄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그렇

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서류도 분실되는 법이 없고, 법원에서는 잊어버리는 일이라곤 없습니다.”

“어느 날, 누구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판사가 그 서류에 눈길이 가서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사건의 기소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바로 체포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나는 외면적인 무죄 판결과 새로운 체포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나는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거기에 어느새 위임을 받은 자들이 그를 다시 체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자유로운 삶은 끝나고 말죠.” “그럼 소송이 새로 시작되나요?” 카가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물론이지요.” 화가가 말했다. “소송은 새로 시작되는데,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외면적인 무죄 판결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결코 두 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째로 무죄 판결을 얻으려면 첫 번째 경우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요?”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들은 무죄 판결을 내릴 때 이미 두 번째 체포도 내다보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사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수많은 이유로 판사들의 기분이나 사건에 대한 그들의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번째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바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무죄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무죄 판결도 최종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카는 말하면서 거부하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물론 아닙니다.” 화가가 말했다. “두 번째 무죄 판결 다음에는 세 번째 체포가 따르고, 세 번째 무죄 판결 다음에는 네 번째 체포가 이어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요. 외면적인 무죄 판결이라는 개념에 이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지요.”

“외면적인 무죄 판결이 당신에게 분명 유리해보이지 않는 것 같군요.” 화가가 말했다. “아마 판결지연이 당신에게는 더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지연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드릴까요?” “(.....)” “판결지연이란 소송을 가장 낮은 단계에 계속 머무르도록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와 조력자, 특히 조력자가 법원과 끊임없이 사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에 외면적인 무죄 판결을 얻을 때만큼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훨씬 더 많은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고, 담당 판사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친분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판사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면 잘 아는 판사를 통해서 그에게 영향을 주어줘 하며,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상담의 길을 아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그 첫 단계를 넘어서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분이 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외면적인 무죄 판결에 비해서 판결 지연은 피고의 미래가 덜 불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고는 갑작스러운 체포로 놀라는 일이 없고, 가령 그의 상황이 지극히 좋지 않을 때 하필 소송과 관련된 일이 겹쳐서 외면적인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경우에 겪을 긴장과 흥분을 감수하는 부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판결 지연의 경우에도 피고로서 가볍게 보아서 안 될 단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경우에 피고가 결코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이라면 외면적인 무

죄 판결의 경우에도 피고의 처지는 사실상 마찬가지인 셈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단점입니다. 적어도 그럴듯한 이유가 없는 한, 소송은 가만히 멈추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무슨 일이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지시가 내려져야 하고, 피고는 심문을 받아야 하고, 심리가 행해진다거나 그 밖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소송은 인위적으로 제한해 놓은 좁은 범위 안에서 별 수 없이 맴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만 그 것을 너무 심각하게 부풀려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일 뿐이니까요. 이를테면 심문도 아주 짧게 치러질 뿐입니다. 출두할 시간이 없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변명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판사들과는 앞으로 지시할 내용들의 장기 일정을 미리 상의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이기 때문에 담당 판사를 찾아가 가끔씩 얼굴을 비쳐야 한다는 것만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카**는 일어선다. 무리하게 긴장해서 머리가 아팠기 때문이다.

화가는 자신의 얘기를 종합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를 방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현실적인/실제적인 무죄판결도 방해하지요.” **카**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것이 부끄러운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셨군요.” 화가가 서둘러 말했다.

결론적으로 **카**는 무죄성고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전혀 없다. 하지만 외면적인 무죄 판결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끝나지 않을 체포와 소송의 순환에 말려들거나 판결지연을 위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노력해서 소송이 진행되지만 사실상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해서 스스로 유죄판결과 함께 무죄판결까지 방해해야만 한다. 그는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5. 혼돈과 우연 앞에서--서류를 배분하는 기이한 방식

삶에서 바탕을 이루는 혼돈과 우연의 힘들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길들일 수 있을까? 문학은 이런 우연과 혼돈의 힘들을 직시하고 그것의 함의와 구체성을 표현하는 장치가 아닐까?

“성으로 가는 길”은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길 없는 길’이다. **카**는 온갖 시도를 다해서 성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제자리에 맴돌 뿐이다.

* 『성』에서 **카**가 서류를 배분하는 과정을 우연히 관찰하는 장면을 보자. (한밤중에 클람의 비서 에를랑거의 호출에 불려간 **카**는 한밤중에 그의 방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방에서 비서의 비서인 뷔르겐을 만난다. 그는 밤의 심문이 규칙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규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밤의 심문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카**에게 심문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정작 **카**는 졸음을 못이긴 채 졸면 안 되는 상황에서 즐기고 있다. 이튿날 아침 그가 깨었을 때 에를랑거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그가 심문을 거절하는 (거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까닭에 모처럼 잡은 기회마저 놓치고 만다.) (Kafka, Das Schloss, 260-4)

(.....) 멀리서 하인 한 사람이 서류를 실은 수레를 천천히 끌고 오고 있었다. 옆에 다

른 하인이 걷고 있었는데 손에 목록을 들고 방 번호와 서류 번호를 비교하는 것 같았다. 거의 모든 문 앞에서 수레가 멈추었으며 그때마다 문이 열리고 관련 서류들이 방안으로 전해졌다. 간혹 한 장뿐일 때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방에서 복도 쪽으로 짧게 뛰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하인을 비난하는 듯했다. 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문지방/문턱에 쌓아두었다. 그런 경우를 보면서 카는 이미 서류까지 배달된 이런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의 움직임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강해진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회한하게도 문지방에 그대로 있는 서류를 호기심을 지니고 엿보고 있었는데 문을 열기만 하면 서류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쩌면 끝까지 그대로 놓여있는 서류는 나중에 서류가 문지방에 여전히 그대로 있는지, 자기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살펴본 다른 나라들에게 분배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 서류가 계속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할당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몇 번이나 사정을 살펴서 서류가 여전히 문지방에 그대로 있는지, 아직 자기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다.)

닫힌 문 앞에서 서류를 방치하는 것은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서류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그 서류를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대로 놓여있는 서류들은 대개 유난히 큰 묶음들로서 **카**는 그것이 자만이나 악의, 또는 동료들 고무하려는 자부심에서 잠시 방치한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런 추측은 오랫동안 구경거리가 되었던 서류 몽치가 그가 보지 않을 때마다 갑자기 방안으로 재빨리 끌려가고 문이 다시 전처럼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더 강해졌다. 그리고 주변의 문들도 이 끊이지 않는 유혹의 대상이 드디어 없어진 데 대해서 실망해서인지 아니면 만족해서 그런지 잠잠해졌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큰 묶음의 방치된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큰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카**가 “보지 않을 때” 누군가가 가져간다. 서류가 방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하는 **카**와 그것을 주시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태도가 서로 맞물려 있다. **카**의 주시가 서류 배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서류 배분 장면에서 이어서 헤렌 장의 주인이 달려와서 **카**를 내쫓으려는 것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마치 문제가 서류 배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의 주목, 탐구에 있다는 듯이.

카는 이 모든 것을 호기심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 일은 갈수록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번호가 맞지 않거나 하인들이 구별할 수 없는 서류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나라들이 이의를 제기하든가 했다. 한번 배분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는 모양이어서 수레가 되돌아오고 열린 문틈으로 서류 반환을 놓고 담판 Verhandlungen이 벌어지곤 했다. 이 담판은 처음부터 큰 어려움에 처했고 전에 활기가 넘쳤던 곳이라도 반환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듯 완고하게 문을 닫아버리곤 하였다. 그때부터 실로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다.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초조해서 안에서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거나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가 하면 문틈으로 몇 번이나 복도를 향해서 특정한 서류 번호를 외치곤 했다. 그럴 때면 수레는 홀로 내버려둔 채로 있곤 했다. 한 하인은 흥분해서 날뛰는 사람을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다른 하인은 다른 문 앞에서 반환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런 답판은 세 경우로 나뉜다.

가) 그런 교섭/협상은 매우 오래 걸렸는데 가끔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리가 서류의 일부를 내놓거나 그 배상으로 다른 서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경우는 단지 전달된 서류가 서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다./뭔가 바뀌었을 뿐이라면 대신 다른 서류를 받았다.

나) 그러나 하인의 증명에 의해서 궁지에 빠지거나 끊임없는 답판에 싫증이 난 경우에 누군가가 요구받은 서류를 모조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서류를 하인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결연히 복도에 내팽개쳐서 끈이 풀어지고 종이 날아가 하인들이 모두 다시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었다.

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반환해달라는 요구에 전혀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부탁하고 애원하면서 목록을 든 손을 떨면서 규정을 증거로 내세워보지만 모두 허사이고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하인은 허락 없이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앞의 두 경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서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하인들은 어쩔 도리가 없이 그것을 ‘분실하고’ 만다. 이처럼 서류가 엉뚱하게 배당된다면 서류 처리 절차와 관련 내용이 어떻게 왜곡될 것인가? 왜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기치 않은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카는 이런 온갖 것을 관찰하면서도 하인을 돌아보곤 했다. (.....) 특히 이 하인의 끈질김은 매우 마음에 들었다. 작고 완고한 방들과 투쟁하면서--카는 방안 사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종종 방들과 다투는 것처럼 보였다--하인은 굴복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지치긴 했지만--누군들 녹초가 되지 않았는가?--곧 기운을 차리고 수레에서 내려 이를 악물고 다시 똑바로 공격목표인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두세 번의 “짓곳은 침묵”에 의해서 반격을 받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식을 바꾼다. 문에서 물러서는 척 해서 다른 문으로 가다가 그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 경충 뛰어가서 문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답판을 시작한다. 이런 피도 통하지 않으면 다른 수를 썼다.

하인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겪은 서류 배분은 ‘완전하게’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가 겪은 고난은 훌륭한 결실을 얻기 위한 값진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카는 예상치 않은 상황에 마주친다.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점으로 볼 때 하인의 서류 배분 과정은 일종의 투쟁이다. 결연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하인은 지혜롭기도 하다. 그나마 이런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서류 배분을 매듭지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은 그것이 획득할 결실 때문에 값진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성과가 전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가 생길 수 있다. 잘못 배달되거나 담판에 실패해서 ‘빠앗긴’서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단 하나의 서류라도 잘못 배달된다면’ 관련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럭저럭 하인은 일을 마쳤는데, 서류 한 건이, 그것이 메모철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지만, 수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배달해야 할 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그 종이쪽을 맡기면 어느 방 나라이건 크게 기뻐할 테지만 그는 다르게 결심했다.”

“분배하는 일이라면 신물이 났던 것이다. 그는 집게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같이 간 동료에게 잠자코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카는 그 곳으로부터 꽤 떨어져 있었다--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물론 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사무에서 본 최초의 규칙 위반 Unregel maessigkeit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정이라고 해도 용서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곳을 지배하는 여러 사정을 보건대 하인이 아무런 실수도 없이 nicht fehlerlos 일할 수는 없었다. 쌓이고 쌓인 분노/짜증와 불안은 갑자기 폭발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단지 종이 한 장을 찢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무죄unschuldig라고 할만 했다.”

앞에서 본 장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서류가 배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마지막 장면, 곧 서류 한 장--단 한 장이지만--이 남아있고 그것을 찢어버리는 상황만으로도 이 전체 과정은 과묵에 이를 수 있다. 서류 배분 과정에서 수많은 우연의 방해로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결정적인 우연, 또는 혼란의 핵심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카는 이런 사소한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개인의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세계--우연과 혼돈으로 가득 찬 세계--를 부인하지 않는다. 물론 서류 배분과 관련해서 이런 오류, 실수, 우연은 체계가 작동하는 한 요소이므로 정상적인 기능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연을 나름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체계가 있겠는가? 찢어버린 종이 한 장이 체계를 마비시키지도 않으며 체계의 예측 가능한 소음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다. 2)

5. 변론서 찾기의 불가능성

보르헤스는 그의 대표작인 「바벨의 도서관」에서 시書들--그는 인간을 불완전한 사서로 본다--이 모든 진리를 담은 완전한 책, 전능한 책, 총체적인 책, ‘한권의 책’을 찾아서 ‘끝없이’ 여행하는 과정을 그린다. 그런데 모든 책이 존재한다는 이 도서관에서는 모두가 찾는 그 ‘한 권의’ 책이 없다.

진리가 없는 도서관에서 진리를 찾는 시도는 카프카적인 세계에서 죄 없는 죄인이 되어서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 성에 이르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도 결코 성에 이를 수 없는 점과 상통한다.

2) 이후 장면에서 카는 모든 방에서 벨소리가 울리고 헤렌 장의 주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까닭에 어찌할 줄 모른다.

앞에서 본 『소송』의 장면을 염두에 둔다면 ‘한 권의 책’이 부재하는 상황,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변론서를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등에서 카프카적 주제를 변주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바벨 도서관에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책이 있다. 이 가운데 개인의 존재 이유를 밝힌 변론서 Vindicaciones가 있다고 한다.

“육각형 진열실에 가면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나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Borges, Ficciones, 94/137)

변론서는 각 개인의 존재 근거를 비롯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책이다. 화자는 ‘진리의 순례자들’이 자신의 변론서를 찾기 위해 광분하는 모습과 그에 따른 아귀다툼을 들려준다. 자신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투고, 미치고, 죽이고 죽는 모습들. 누구인들 자신의 변론서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밀치고 당기면서 몸을 던지지 않겠는가?

보다 냉정하게 문제를 살펴보자. 과연 변론서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일까? 혹시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그 책을 찾는 데 얼마나 걸릴까?

(어떤 것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책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찾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변론서가 존재한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수한 책을 소장한 도서관 어느 진열실에 있는지를 찾거나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자는 안타깝게도 그런 책이 있더라도 그것을 찾을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고 알려준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찾을 수 없는 책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단지 찾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찾을 수 없는 책.

이처럼 찾을 수 없고, 찾을 가능성이 없는 책의 경우가 바로 실질적인 무죄가 불가능한 경우와 같지 않은가?

이처럼 변론서를 찾을 확률이 ‘0’에 가깝다면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자신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야만 하는가?

이런 삶의 무의미와 허무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카**의 노력이 불가능함을, ‘실질적인 무죄’ 대신에 ‘외면적인 무죄’나 ‘판결 지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노력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역설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벨의 도서관’은 어떤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을까? 보르헤스는 **카**의 불가능한 노력, 역설적인 전진, 무의미를 벗어날 수 없는 무한한 노력의 반복되는 실패에 대해서 문제를 새롭게 보기를 권한다.

그는 카프카적인 문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카프카가 던진 문제에 새로운 질문을 보낸다. 우리는 카 앞에서 서투른 희망을 갖거나 무의한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절박함 때문에 간편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수는 없다.

카의 모든 시도는 왜 실패하는가? 카의 무능이나 판단 착오 때문인가, 아니면 성의 조직적 방해 때문인가?

이런 맥락에서 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법원에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불가능한 노력이 전적으로 ‘우연에 맡겨져 있고’ 방해물들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연의 연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욱 기이하고 역설적인 성격을 지닐 것이다. 그래서 어떤 논리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가 무의미해 질 것이다.

물론 온갖 방해에 부딪히고 그것에 맞서면서 성에 이르려는 카의 경우에 원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의 힘겨운 노력은 불가능성을 짊어지고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는 길을 지향한다. 『소송』에서 카는 불가능한 증명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삶의 무의미를 마주한다.

누구라도 법원이 추정하는 죄의 혐의를 벗을 수 없고 성에 이르는 길을 조직적으로 차단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의 체포 명령이나 선고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으며, 성의 관리들이 '우연의 논리'에 따른다면 어떻게 카가 자신의 의미를 찾고 성에 갈 수 있을까--그에 앞서서 관리들과 만날 수 있거나, 그들의 심문을 받거나 명령을 전달받을 수 있거나 할까? 누가 성의 관리인가, 누가 편지를 전달하는가,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전달한 편지의 '때에 맞지 않은', '무의미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카는 우연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채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성』에서 측량기사로 임명한 카의 임명장을 찾을 수 없고,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엉뚱한 편지가 전달되고, 성의 관리라고 하는 클람을 만날 수 없고(클람은 매번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누구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그의 조수나 대리인도 만날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의 모습마저 매번 달라지니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비서는 물론이고 '비서의 비서'를 통해서 조서를 작성하더라도 아무도 읽지 않거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어긋남들이 바로 우연의 질서를 이루는 요소이고, 우연의 세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연의 행로를 통해서 목적을 추구한다. 카프카의 작품들은 이런 세계의 모습을 냉철하게 지적한다.

카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소년 바르나바스는 성에서 정식으로 파견한 인물도 아니고, 그 자신도 성의 관리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만나더라도 누가 관리인지도 모른 채, 분리되고 고립된 사무실의 한 곳에서 어떤 연관성도 알지 못한 채 우연하게 던져져 있는-- 효력도 없을-- 편지를 들고 나오고, 게다가 그것마저 곧바로 전달하지 않고 아무 때나 마 내킬 때에 카에게 들고 온다.

참고문헌

양운덕, 『문학과 철학의 향연』, 문학과 지성사, 2011.

Franz Kafka, Das Schloss, ((Hrsg.), Max Brod),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81.

_____, Der Prozess, ((Hrsg.), Max Brod),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81.

Serres, M., La Distribution, Hermès IV, 1977, Minuit. (D로 줄임)

_____, La naissance de la physique, 1977a, Minuit.

_____, Le Parasite, Grasset, 1980.

참고 자료

** 혼돈의 바다, 질서의 섬

1. 만유인력법칙의 창시자인 뉴턴도 집을 나설 때 흐린 하늘을 보면서 우산을 들고 가야할지 망설인다. 지구, 달, 별들의 운동을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의 운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 현상에 따른 카오스로 이곳에서 펄럭이는 나비의 날개 짓이 저곳에서 폭풍을 몰아칠 수 있다. 천문학자들이 일식, 월식의 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구름이 몰려와서 관측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구름들은 잘 변하고 경계가 유동적이지만 일시적인 균형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낳는다. 구름의 분포를 이해하려면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

세계에는 질서가 있는가? 질서가 있다면 어떤 질서가 어떻게 있는가? 세계 전체가 단일한 질서를 갖는가? 아니면 이질적인 질서들이 공존, 갈등하는가? 세계에 하나의 질서가 편재한다면 세계에는 어떠한 혼돈, 우연, 창조, 새로움도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카오스 이론가들은 질서가 전면적이지도 않고, 단일한 지배권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질서와 법칙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태도를 고수할 것인가(이런 태도는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잠정적이거나 해소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아니면 어떠한 질서나 법칙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어떠한 인과 법칙도 없으며 모든 사물들은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하면서 우연이 세계의 지배자라고 주장할 것인가?

우리는 질서와 무질서를 함께 사고하고 질서와 무질서의 공존을 모색하는 인식론을 추구하고 이런 틀로 무질서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인간의 삶과 예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고정된 질서를 추구하거나 안정된 변화를 선호하는 정역학적 사고는 운동을 일정한 법칙의 틀로 장악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지stances, 종합, 항상성constances을 지향하는 사고는 열적 차이의 분포가 그물망을 조직하는 구름-현상들의 불규칙성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

포괄적인 개념들에 의해서 감추어지거나 억제된 막대한 개체군, 합리적인 것을 벗어나는 우연들, 무수한 것들l'innombrable과 사라져버린 경계les bords effacés, 모든 메시지의 조건인 바탕 소음le bruit de fond, 산일된 에너지, 열, 무수한 요소들les éléments par myriades을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D 228)

그러면 구름-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세르는 상황에 대한 인식론을 제시한다. 그는 전통적인 실체론적인 사고나 근대의 법칙적 사고들, 본질 구조나 불변성으로도 파악될 수 없는 ‘상황’을 인식론적 주제로 삼는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가변성이 지닌 풍성함과 변화무쌍함을 명사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적인 것으로 보고 형용사의 철학을 제안한다.

먼저 상황을 어떻게 사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므로 불안정하지 않은가? 상황은 가변적일 뿐인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불변성을 지니는가? 그는 이런 양자택일적 사고가 아니라 상황의 이질적인 두 측면에 주목한다.

“상황은 안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안정한 것도 아니다. 상황은 불안정한 가운데,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에 dans et par l'instabilité 거의 안정적인고도 거의 불안정하다 quasi stable et quasi instable. 상황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 된다 Elle tient parce qu'elle ne tient pas. 이런 사정으로 상황은 산출한다.”(D 228)

로렌츠가 발견한 나비 효과에서 보듯이, 기상 현상의 경우에 특정한 시각의 날씨를 예측할 수 없다. (정확성이 경험 조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려면 무한한 정보가 필요하다.

“천문학자들은 일식이나 월식의 순간을 초 단위까지 따져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일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예측할 줄도, 예측할 수도 없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필자] 바로 그 순간에 구름이 현상과 관찰자 사이에 끼어들지도 모른다. 이 구름도 상황이다. 유리하건 불리하건 뜻밖의 상황이 예측된 순간을 둘러싼다. 상황들 les circonstances이 정지 상태들 주위에 autour de l’instance 분포된다. 후자는 천체들이 이지러지는 하늘이나 하늘의 일부처럼 정돈된 상태이고, 전자는 대기현상처럼 혼란스럽다....예측할 수 없는 구름은 세계의 질서를 가린다. 관찰하는 자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은 그 주위나 앞에 autour ou devant 있는데, 상황은 에워싸거나 가린다.”(D 228)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를 따르는 정상적인 철학자는 코스모스, 세계의 질서를 옹호한다. 이 틀은 별들을 규칙으로, 일식이나 월식을 시각 상 일렬로 늘어선 상태로 파악한다. 이 질서는 주기적인 변화를 뛰어넘는 안정된 체계, 태양계의 질서를 이룬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별들과 은하들의 혼돈스러운 분포가 있다 (多體 문제에 따른 불안정성, 예측불가능성).

그러면 우주의 무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우리 가까이 있는 카오스, 예를 들어서 비, 바람, 번개, 구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고전주의 이래 어떤 이론가도 기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상의 카오스야 말로 농부, 선원, 석수장이, 야외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이다.”³⁾

카오스와 질서의 상관관계에서 질서만을 추구하는 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주제로 제기할 수도 없다. 코페르니쿠스적이거나 라플라스적인 질서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질서를 철저히 따르다. 이런 틀은 운동이 하나의 종합에서 다른 종합으로, 하나의 항상성에서 다른 항상성으로 진행된다고 보므로 어떠한 혼란이나 무질서도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D 228-229)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카오스와 질서의 상관성이다. 카오스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질서도 불가능한가, 아니면 카오스와 질서는 공존가능한가?

카오스의 바다에서 질서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얼마나 존속가능한가? 세르는 질서가 일시적인 평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특정한 질서를 두 비탈 사이의 꼭대기, 근방의 점이나 바다 위의 섬에 비유한다. 그는 세계의 체계와 체계 일반을 환초, 環狀의 珊瑚礁 atoll로 본다. “그 바깥에서는 대양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안으로는 석호의 물결이 넘실대는 고리.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것.”(같은 책, 229)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raisons는 ‘단지 한순간 액체들이 형성하는 카오스 위로 불쑥 솟은 희귀한 선 ligne rare surplombant’일 뿐이다. 이 선은 안정적이고 윤곽이 뚜렷하고 assez bien dessinée, 질서지워져 있고 en ordre, 평형을 이루지만 잠정적인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특권적인 지점이나 불변적인 요소를 앞세워서 카오스의 바다를 질서의 대지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높은 산의 주요 지점--고전주의적인 고정점, 중심점, 관점--이나 19세기처럼 협로에서 꼭대기로, 최소치에서 최대치로, 정립에서 종합에 이르는 끊어진 길을 주파하여 환초를 따라서 대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D 229-230)

세르는 불변적인 질서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가 ‘수면이 바람으로 일렁이는 유쾌한 대양에서 Suave mari magno turbantibus aequora ventis’(D 230)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3) 기상의 카오스를 잊도록 아이들을 학교에, 일꾼들을 공장으로 보내면 무질서를 은폐할 수 있다. 고전주의의 인식론의 한쪽에는 데카르트적 사고에서 출발해서 대기 현상을 소멸시키려고 하고, 다른 쪽에는 태양계를 넘어서는 우주론에 대해서 사고하기를 금지한다--콩트의 금지 사항.

이는 환초 자체가 (진스Jeans나 맥스웰이 지적하는) ‘소음의 대양 위에 있는 희귀한 특이점, 기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D 230) 질서는 무질서의 기적이고, 메시지는 소음 위에 있는 지극히 드문 것이다. “섬은 개연적이지 않다improbable. 규칙과 이성, 구조와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런 비개연적인 것들 곁에 있다. 현실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인 것은 기적이다. 항상성은 상황들의 질서 지워지지 않은 실제 상에 자리 잡은 기이한 구성체formation extraordinaire이다.” (D 230)

그런데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과학, 철학은 질서, 체계라는 중심과 정점에서 주변과 무질서, 우연을 배제하고자 한다. 질서를 숭배하는 철학은 항상 산꼭대기,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는다. 중심적 특이성들singularités centrales에만 열성을 보일 뿐 주변에는 관심이 없다. 무질서를 배제하는 시도는 질서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에 봉사한다. 하지만 상황의 급변révolution 때문에 사물들의 상태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물론 (일정한 규정을 지닌) 대상, (객관적인) 사실, (보편성을 지닌) 개념은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일반적이거나 전면적이지 않고 지극히 드문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 (D 230) 그러면 안정된 질서의 밑바닥에서 요동하는 흐름, 난류를 어떻게 주제화할 수 있는가?

세르는 미묘한 차이들nuances에 주목하는 형용사적 철학을 제안한다. 이것은 미묘한 차이들이 이루는 구름-현상을 사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관한 철학은 형태론적으로 미묘한 차이에 관한 형용사론une théorie adjective des nuances이다. 실체 근방의 혼란스러운 공간, 산만하고diffus 혼란스러운confus 공간, 곧 전복되고, 흩어져 있고 엄청나게 확장된 공간, 유체적 카오스 상태un état chaotique fluide의 공간에 관한 형용사론이다.(D 230)

실체론에 바탕을 둔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는 본질적인 실체와 그것에 딸려있는 속성들의 관계를 각각 주어와 술어 구조에 대입했다.⁴⁾

본질적인 실체와 그것에 딸린 속성(양, 성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상태, 능동, 수동)을 나눈다면, ‘속성들’은 그것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어서 ‘다른 것 안에’ 있고ens in alio, ‘다른 것으로부터’ 생긴다. 이와 달리 ‘실체’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이므로 ‘자기 안에’ 있다ens in se. 그래서 ‘독립적’이고 ‘본질적’이다. 곧 실체는 변하는 것과 달리 항상 같은 것이고, 의존하는 것과 달리 독립적인 것이다.

이런 실체의 존재를 언어적 틀로 옮기면, 실체는 주어가 되고, 가변적인 속성들은 술어가 된다. 다양한 상태와 변화, 운동을 표현하는 동사와 형용사들은 술어 자리에 놓이고, 운동과 변화를 넘어선 것으로서 고정된 본질을 지닌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놓인다.

이런 실체-명사론은 (운동과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불변적 본질의 자격을 갖춘 명사를 앞세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론은 모두 명사-실체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모든 것을 불변적 질서 안에 배치한다. 이런 틀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그것에 의존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의 불변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생성의 혼돈’에 묶여있는 것들이다.

근대 과학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철학은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칙을 추구하는 점에서 동사적 관계에 주목한다. 하지만 변화를 법칙의 틀에 고정시키는 점 때문에 생성의

4) 아리스토텔레스는 ‘말(馬)’과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나 ‘저 말’, ‘진수’나 ‘유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개체들이 ‘實體ousia’이다. (‘제1 실체’, ‘첫 번째 실체’) 속성은 실체가 지닌 성질들이다. ‘이 말(馬)’은 다리가 넷이고, 잘 달리고, 힘이 세고, 온순하다. 이런 속성들은 ‘이 말’에 속한다. 곧 ‘이 말’이라는 실체가 그 속성들의 바탕이다.

세계는 겉으로는 변화에 휩싸이지만, 수학과 법칙적 사고의 설명에 따르면 안정된 질서에 따라서 예정대로 움직이는 고정된 순환과 예측 가능한 이동의 틀에 갇힌다. (예를 들어서 $y=f(t)$ 라는 함수 관계에서 dt/dy 의 값, 미분함수의 값은 일정하므로 t 와 y 의 관계는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계산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 마치 등속으로 달리는 두 기차에서 서로 마주 보는 두 사람이 운동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 운동 속도가 일정한 까닭에 불변적 운동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물론 가속 운동의 경우에도 운동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들의 상관성은 항상 일정하다.) 문제는 동사가 운동과 변화를 표현하는 점 보다는 어떤 운동, 어떤 변화를 주제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동사가 변화와 운동을 법칙에 가두고 고정시키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비선형적 운동이나 열에 의한 변형의 문제를 사고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법칙의 틀은 한계를 갖는다. 세르가 지적하듯이 이런 법칙은 (카오스적인) 현상들의 구체적 상태를 파악하기 보다는 현상들을 지배하고 명령하려는 것이다.

세르는 형용사가 명사나 동사의 부속물이나 속성이라고 보지 않는다. 거꾸로 實辭le substantif는 미묘한 차이들이 만든 지속성consistance de nuances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구름이 약간 무거워지고 굳고 응고하는 장소, 다수의 형용사들이 때 지어서 모이는 영역일 뿐이다. 섬의 꼭대기가 바다가 침입하면 사라지듯이, 실사의 근방에서 형용사들을 제거한다면 실체적인 것은 남지 않을 것이다. 실사는 ‘형용사의 최대치/극한 maximum d’adjectifs’에 지나지 않는다. 형용사들의 무리가 사라지면 현상, 현실, 규정된 극단들도 사라진 텅 빈 자리만 남을 것이다. (D 230-1)

** 복잡성의 원리와 단순한 이성 비판

가)복잡성의 원리들

모랭은 실재의 복잡성을 사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원리들을 제시한다. (Morin, 1990, 98-101) 이것은 대화적 원리, 회귀 원리, 홀로그램적 원리 등이다.

가)대화적 원리는 닫힌 이성에 맞서서 열린 이성을 제안한다. 기존의 닫힌 이성은 일련의 경험적 사실들을 논리적 정합성, 일관성으로 묶으려고 하는 점에서 합리적이었고, 모든 사실을 전체화하는 원리를 추구한 점에서 합리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시도는 모두 닫힌 체계를 추구한다. 이런 시도들은 단일한 원리로 모든 사실들을 포괄하려고 하기에 그 원리에 의해서 정식화될 수 없는 것들을 비합리적이거나 무 합리적인 것으로 배제한다. 이와 달리 열린 이성은 비합리적인 것과 대화하고 상이한 논리를 소통시킨다.

이런 대화적 원리는 변증법적이지만 기존 변증법과 다르다. 변증법이 비합리성을 보다 포괄적인 이성을 전개하는 한 요소로만 보는 점에서 여전히 닫혀있음과 달리 대화 원리는 어떤 종합이나 완결된 전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모랭은 대화 원리로 우연, 모순, 개별성 등의 비합리적 요소를 포괄하기 위해서 역설을 포괄하는 (비동일성에 머무르는) 열린 논리를 모색한다.

예를 들어보자. 생명 조직은 물리-화학적 실체들이 이루는 두 유형의 작용이 마주침으로써 태어난다. 이것은 ①재생산될 수 있고 유전 기억을 지닐 수 있는 안정된 유형(DNA)과 ②다양하고 극히 불안정한 형태의 단백질들을 형성하는, DNA의 메시지에 따라 구성되는 양 측면에 따른다. 즉 ①유전정보를 지니고 재생산을 보장하는 안정된 논리와 ② 현상적 삶을 허용하는, 환경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불안정한 단백질의 논리인 상반된 두 논리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원리들은 단순히 병치되지 않으며 서로가 다른 것에 필수적이다. (성적 과

정은 개체들을 생산하고 개체들은 성적 과정을 생산한다) 두 원리들, 초-개체적인 재생산의 원리와 ‘여기와 지금’의 개체적 존재 원리는 서로 보충적이면서 동시에 적대적이기도 하다. 이 두 원리들 간에 대화가 존재한다. 이때 대화적 원리는 통일 가운데 이원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두 항은 보충적이면서도 적대적으로 연결된다. 질서와 무질서의 대화에서 질서와 무질서는 적대적이다. 하나가 다른 것을 제압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협력해서 조직하면서 복잡성을 생산한다. (질서와 무질서는 상호 작용하여 조직화로 이어진다.)

나) 조직적 재귀(récursion organisationnel)의 원리는 사이버네틱스에서 조절 기제로 이용되는 되먹임을 발전시킨 것이다. 재귀적 과정에서 최종 산물들과 결과들은 최초 상태나 원인으로 작용한다. 곧 결과들이 동시에 ‘원인들’이 되고 산물이 그것의 ‘생산자’가 된다. 5) 재귀적 고리boucle récurrente는 전통적인 원인-결과의 직선적 모델을 재고하게 하고 조직화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랭은 이 고리가 자기-생산production-de-soi, 쇄신régénération을 의미하는 점에서 발생성générativité의 바탕이라고 본다. 곧 재귀성, 발생성, 자기 생산, 쇄신, 재조직이 같은 중심 현상의 다양한 측면들이라고 본다. (Morin, 1977, 186)

개체와 중, 재생산의 예를 들어보자. 개체들은 그것들에 앞서서 재생산 과정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일단 개체가 산물들인 한에서 개체는 계속되는 과정의 생산자들이어야 한다. 이것을 사회와 관련시켜보면, 사회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들에 의해 산출되지만 그것이 일단 생산되고 나면 개인들과 그 산물들에 반작용한다. 개인들은 만약 사회, 문화, 언어, 획득된 지식이 없다면 인간적 개체로 형성될 수 없다. 개인들은 사회의 산물들이면서 그들을 산출하는 사회를 산출한다. 개인들은 산물들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들이다. 재귀적 개념은 원인/결과, 산물/생산자, 구조/상부구조의 직선적 개념과 단절한다. 왜냐하면 생산된 모든 것이 자기-구성적, 자기-조직하는, 자기-산출적인 주기로 그것을 생산하는 것에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3 홀로그램적 원리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기 위한 것이다. (가보Gabor가 제시한) 물리적 이미지인 홀로그램에서 그 이미지의 미소한 점들은 표상된 대상에 관한 정보의 준-총체성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부분은 전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가 부분 안에 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세계에서 유기체의 각 세포들은 그 유기체의 유전정보 총체를 포함한다.)

이런 홀로그램 개념에 비추어 보면, 전체를 알려진 부분들의 독립된 속성으로 설명하는 환원론이나 부분의 속성들을 그것에 우선하는 전체의 속성으로 축소시키려는 전체론은 모두 단순하다.

이런 홀로그램적 조직에서 부분들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①부분들은 전체 조직이 지닌 일반적이고 발생적인 성격들을 배치하는 단일하고 독특한originale 것이다. ② 부분들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 ③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고 조직상의 교환을 실행한다. ④ 부분들은 전체를 쇄신하는 사건적인 것이다. (Morin, 1986, 102)

이처럼 이 틀에서 전체는 부분 안에 일정한 방식으로 기록되는데 바로 그 부분은 전체에 포함된다. 전체의 복잡한 조직화는 단일성을 지닌 각 부분들에 기록된다. “나는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없

5)모랭은 이것을 사이버네틱에서 이용되는 ‘되먹임(rétroaction; feed back)’과 구별한다. 되먹임은 어떤 결과가 나온 경우에 그 결과를 다시 같은 원인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에 더해진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된다면 원인과 결과는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처럼 움직이고 원인과 결과는 서로 맞물린다. 이런 되먹임을 사이버네틱scybernetics에서는 제어 장치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밥솥이나 자동온도 조절기에서 보듯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과의 값을 일정하게 ‘빼주는’ ‘- 되먹임’(음陰의 피드백negative feed back)을 이용한다.

다”(프라스칼). 이런 역설을 받아들이려면 직선적 인과성과 단순성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재귀적 논리에 따라 부분들에 대한 인식에서 얻어진 것은 전체에 되돌아간다. 또한 전체가 돌발적으로 출현시키는(창발적:émergente) 성질들에 관해 아는 것은 부분들로 되돌아온다. 이런 특성은 생명 조직, 두뇌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인류학적 복잡성에 관련된다. (그리고 홀로그램 개념은 재귀적 개념에, 또 이것은 대화적 사고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원리들의 대화와 소통을 마련해야 한다.)

나) 복잡성으로 다시 본 이성

전통적으로 복잡성은 일종의 결함, 혼란, 난점으로 여겨졌다. 이와 달리 모랭은 복잡성의 틀로 경험적이고, 불확실하고, 전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하나의 범칙으로 정식화할 수 없고, 절대적 질서를 인식할 수 없는 세계를 제시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 모순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추론에서 모순이 나타나면 오류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 경험적-합리적 과정에서 모순에 부딪칠 때 그것은 오류라기보다는 실제의 심층적인 면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그런 심층적인 측면은 우리의 논리로 이해, 번역될 수 없기 때문이다. (Morin, 1990, 92)

복잡성은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물들에 대한 완전한 관점을 지닌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대상을 다른 대상들과 고립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실제의 다차원적 성격을 강조한다.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단순한 관점은 한쪽에는 경제적 현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심리학적 현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것 안에 욕구와 욕망들이 있음을 망각한다. 화폐 배후에 감정들의 세계, 인간의 심리가 있다. 경제적 차원은 다른 차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차원적 방식으로는 어떠한 현실도 이해할 수 없다. (같은 책, 92-3))

다차원성에 관한 의식은 모든 일차원적 관점, 모든 특수화된 관점이 빈곤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모랭의 복잡성 사고는 다차원성을 완전함에 대한 추구와 동일시하지도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복잡성에 대한 열망은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다른 의미로 불확실성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결코 총체적 지식을 지닐 수는 없다. (같은 책, 93)

복잡한 우주를 인식하려는 수단들은 분명히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성 개념에 대해서 복잡성을 고려한 자기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Morin, 1990, 94-97) 이성은 현상들, 사물들, 우주에 관한 일관된 (정합적) 관점을 가지려는 의지에 상응한다. 이성은 논리적으로 다룰 여지가 없이 명백한 측면을 추구한다. 모랭은 합리성rationalité과 합리화rationalisation를 구별한다. 그는 합리성이 논리적 구조들을 창조하는, 그것들을 세계에 적용하고 대화하는 인간 정신과 실제 세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대화라고 본다. 이 세계가 우리 논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 논리 체계가 불충분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불일치에 대면하여 세계를 논리구조로 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시도를 하는 논리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에 맞지 않는 실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합리성은 결코 논리적 체계로 실제적인 것의 총체를 다 펴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우주는 우리 두뇌 구조로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하지 않을까?

합리화rationalisation는 프로이트나 정신의학자들이 병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현실을 정합적인 체계에 가두려고 한다. 현실 안에서 이 일관된 체계에 어긋나는 것은 버리고 망각하고, 꺾어두고, 환상이나 헛것으로 본다. 자기 체계와 어긋난 것을 버리려는 무의식적 경향은 대립된 주장들을 축소시키거나 거부한다. 자기 생각에 호의적인 것에 선택적

으로 주목하고, 악의적인 것에 선택적으로 외면한다.

합리화가 사실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면 합리성은 경험의 던지는 문제투성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물론 이성이 경험보다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관찰이나 경험이 이성보다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합리화는 경험에 대한 논리의 과잉이다. 그것은 현실의 복잡성을 거부한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구체적인 것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추상적 정합성에만 매달린다. 이처럼 자기 안에 갇힌 이성은 ‘광기’이다. 광기는 지각상의 오류나 이데올로기적 환각에 불과한 것들에 절대적 현실성을 부여하는 성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장악할 수 있다는 이성의 꿈에도 광기가 있다. 게다가 최악의 광기는 자신이 광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닌가? 모래는 이런 광기가 이성 안에도 들어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런 광기와 싸울 수 있는 것도 (복잡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이성이라고 주장한다. (Morin, 1981, 138-146; 2부 7장 3, 4절 참조)

따라서 논리적 망상을 교정하고 경험적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자기 비판적 이성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비일관성이라는 망상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일관성 la cohérence absolue이라는 망상도 위험하다. 비판적 이성은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일하게 신뢰할만한 인식 수단이 단순히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비판적이란 조건에서 (대문자) 이성의 신격화에 맞서야 한다.

다) 불확실성을 안고 사고하기

복잡한 세계에서 생성과 변화를 어떤 결정론적 법칙으로도 장악할 수는 없다. 생성과 변화는 결정론이 보듯이 기계적이거나 線型的이지 않다. 따라서 단순한 틀로 변화를 설명하고 확실한 예측을 제시하는 것은 어리석다.

복잡한 관계 망에서 사건들과 의미들은 표류하고, 어긋나고, 의미가 뒤집어지고,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기도 한다. 기술적, 문화적, 사상적 발명들, 혁신들, 창조들이 변화의 흐름을 바꾸거나 변혁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런 창조들은 혼돈, 탈선을 가져오기도 하고, 새로운 경향을 만들기도 하고, 지배적인 경향에 편입되기도 하고, 그것이 새롭게 지배적인 경향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창조나 혁신이 가져오는 효과도 직선적이거나 규칙적이지 않다. 창조가 만드는 어긋남은 갈라짐 bifurcation 점에서 새로운 안정을 이루기도 하고, 갈등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생성과 변화는 복잡하다. 역사는 혁신하고, 표류하고, 엇길을 가기도 한다. 주된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일탈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탈이 주류를 이룰 수도 있다. 그래서 변화는 고정된 방향이나 단 하나의 진로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표류하고, 일탈하고, 창조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한다.

그리고 변화에는 위기, 임계점, 불확실한 순간들이 있고, 갈라짐 bifurcation이 나타날 때에는 약간의 자극도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소한 변화, 미미한 움직임, 대수롭지 않은 우연들, 몇 가지 결정이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조건에 민감한 까닭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선부르게 단순한 전망, 희망의 복음을 제시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이런 복잡한 변화를 유연하게 사고하려는 복잡성의 사고 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

복잡한 사고는 분리되고 구획되어 있는 것을 연결시키고, 하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여럿(차이들)을 존중한다 (unitas multiplex). 이런 사고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는 점에서 근본

적인 사고이고, 다차원적이다. 또한 이것은 전체와 부분의 되먹임 관계(전체가 부분을, 부분이 전체를 규정한다)를 유기적으로 사고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을 고립시켜서 관찰하는 대신에 그것과 환경(문화, 사회, 정치, 경제, 자연)과 맺는 자기-생태-조직적 관계를 고려하는 생태학적, 환경학적 사고이다.

행동은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행동할 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불확실성을 안고 사고해야 한다. 따라서 불확실성 안에서 예측불가능성, 상호의존, 상호작용-반작용, 불연속성과 비선형성, 불균형, 갈라짐을 포함하는 문제들과 맞서야 한다. 앞에서 홀로그램의 원리로 제시했듯이 부분이 전체 안에 있고 또한 전체가 부분 안에 있는 점에 주목한다. 개별적인 것을 그 맥락과 전체에서 떼어낼 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포괄적(지구적)으로 생각하면서 국지적으로 행동함 penser global/agir local과 동시에 국지적으로 생각하면서 포괄적으로 행동함 penser local/agir global이 필요하다. 복잡성의 사고는 보편과 구체,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대립시키지 않는다. 보편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이 되고 또 구체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추상적 보편을 상실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의 상실로 오해한다. 가짜 합리성의 상실을 합리주의자는 비합리주의의 특세로 볼 수도 있다. 추상적인 진보주의가 내세우는 보편성은 위기를 맞지만 그것에 대신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독특한 세계에 자리잡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 보편성이 나타날 것이다. (Morin,1993,190-2)

이런 태도는 실제의 복잡성에 맞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확실성과 무질서의 생산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복잡한 문제 해결 전략을 짜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세계와 인간에 관한 어떤 초월적 원리도 믿지 않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서는 것이다. 그는 초월적 복음(좋은 소식) 대신에 인간들이 해결해야 하는 위기들에 대한 '나쁜 소식'과 자유와 공동체의 연약한 가치를 지키고, 덧없는 존재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모랭의 틀은 자연과 사회를 아울러 설명하고자 하며 인간, 세계의 복잡성을 통해 사고의 위기와 인간들의 자연적, 사회적 삶의 터가 갖는 위기에 대처하려 한다. 물론 위기에 맞서는 전략은 현실과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자기점검을 요구한다. 그는 불확실성을 마주하여 '내기'를 건다. 그는 어떠한 인식과 행위를 통해서도 지워버릴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위기를 마주하도록 내몬다. 복잡한 존재인 인간이 지닌 이성-광기가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지는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위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출발'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Fages, J. B., Comprendre Edgar Morin, Privat, 1980.
- Morin, Edgar, Le Paradigme perdu: la nature humaine, Seuil, 1973.
- _____, La Méthode. 1. La Nature de la Nature, Seuil, 1977.
- _____, 2. La Vie de la Vie, Seuil, 1980.
- _____, La complexité, dans <Revue internationale des Sciences sociales>, 26, 1974.
- _____, Pour sortir du vingtième siècle(『20세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고재정, 심재상 옮김, 문학과 지성), Fernand Nathan, 1981.
- _____, Introduction à la pensée complexe, E.S.F. 1990.
- Morin, Edgar/Kern, A. B., Terre-Patrie(『지구는 우리의 조국』, 이재형 옮김, 문예, 1993) Seuil, 1993.